

희망의 바다

조승옥

물거품처럼 사라진 꿈
바다만 바라본던 노인
잘근 입술 깨문다.

살아갈 날 염려는 접고
살아온 날의 반후(反後)
묵숨건 뱃길 한 평생

돌아보면
웃다 울던 아쉬움
파도에 다 부서지고
달랑 빈 배만 남은 오늘

저 멀리
대어(大魚)가 기다리는 허허바다
언제나 오라고 손짓하니
다시, 공들이는 어구와 작은배
헛헛한 웃음 지으며 훌쩍진 다짐
내일,
다시 바다로 나가리라.

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	노인과 바다 <헤밍웨이>
작품 설명	최선을 다한 삶에서 실패했을 때 포기하기보다 큰 좌절을 딛고 일어서면 더 큰 희망이 되기에 새로운 다짐을 해본다. 노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보다 살아온 날, 한평생 어부로서의 삶에서 희노애락의 아쉬움은 남지만 삶의 터전 바다에서 살아왔고 남은 것은 빈 배 한 척이 전부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새치와 싸움은 잊지 못해 다시 넓고 큰 바다를 보면 언제나 나를 오라 부르기에 언제나 그랬듯이 바다에 나갈 준비하는 어부이다. 그래, 세상 다 그런 거지 하며 털어버리는 용기와 새로운 어부의 꿈은 다시 희망을 찾아 바다로 나갈 결심을 한다.